내신 대비 문제

기는 환인

- □ 다음 설명이 맞으면 , 틀리면 ×표를 하시오.
 - 수비'에는 오늘날에는 없는 자음이 들어 있다. (
 - ② ':회·예'의 첫음절과 둘째 음절은 성조가 다르다.

알맞은 내용에 ○표를 하시오

- ◎ '·뿌·메'에는 (이어 적기 / 거듭 적기 / 끊어 적기) 방식이 적용되었다
- ② 근대 국어에서는 주격 조사 ('가' / '이')가 등장하여 점차 확대되어 쓰였다.

정답: 0 ○ 0 ○ 0 이어 적기 0 '가'

.....

〈보기〉의 ①~ⓒ의 시제를 바르게 짝지은 것은?

- 이쁴 아돌들히 아비 ①죽다 듣고 (이때 아들들이 아버지가 죽었다 듣고)
- 그래 시제 • 내 이제 分明히 너드려 © 닐오리라 전어말 어미 (내가 이제 분명히 너에게 말하겠다)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
- 하늘히며 사름 사는 짜홀 뫼호아 世界라 ⑤ 호는 니라

(하늘이며 사람 사는 땅을 모아서 세계라 한다.)

	•	L)	Œ
1	과거	현재	미래
2	과거	미래	현재
3	과거	과거	미래
4	현재	현재	미래
(5)	현재	미래	현재

답 ② / '죽다'는 '죽-+-다'로 분석되며 시제 선어말 어미 없이 과거 시제가 실현된 것 이고, '닐오리라'는 '니르-+-오-+--리-+-라'로 분석되며 '-리-'를 통해 미래 시제가 실현된 것이다. 그리고 '호닉니라'는 '호~+~닉~+~니라'로 분석되며 '~닉~'를 통해

〈보기〉에 따라 '나 랏:말'의 소리의 높낮이를 바르게 표시 한 것은?

보기

중세 국어에서는 각 글자의 왼편에 방점을 찍어 소리의 높낮이를 표시하였다. 예를 들어 '아·니:뮐· **씨'는 오른쪽과 같은 소리의** 아 내 :뿔 ·씨 높낮이를 나타낸다.

② 나 랏 말

③ 나 랏 말

④ 나 랏 罗

⑤州引聖

답 @ / 〈보기〉에 제시된 '아·나ː뮐·씨'의 방점과 소리의 높낮이를 고려할 때, 점이 없으면 낮은 소리, 점이 한 개이면 높은 소리, 점이 두 개이면 처음은 낮고 나중은 높은 소리임을 알 수 있다. '나 랏 말'의 '나'는 점이 없고, '랏'은 한 점, '말'은 두 점 이므로, '낮은 소리 \rightarrow 높은 소리 \rightarrow 처음은 낮고 나중은 높은 소리'로 소리의 높낮 이를 표시해야 한다.

〈보기〉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?

중세 국어에서는 객체를 높이기 위해 서어말 어미 를 사용했는데. 이 선어말 어미는 음운 환경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다양한 형태로 실현되었다.

형태	환경
- 숩-	어간 말음이 'ㄱ, ㅂ, ㅅ, ㅎ'일 때
- 쟙-	어간 말음이 'ㄷ, ㅌ, ㅈ, ㅊ'일 때
-含-	어간 말음이 모음이나 'ㄴ, ㅁ, ㄹ'일 때

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오면 '-숩/줍/숩-'의 형태로 실현되었다.

- ① '돕고'는 '-숩-'을 사용하여 '돕숩고'가 될 수 있겠군.
- ② '묻지'는 '-줍-'을 사용하여 '묻줍지'가 될 수 있겠군.
- ③ '보아'는 '-슼-'을 사용하여 '보슨바'가 될 수 있겠군.
- ④ '내어'는 '-줗-'을 사용하여 '내즈바'가 될 수 있겠군.
- ⑤ '빌게'는 '-숩-'을 사용하여 '빌숩게'가 될 수 있겠군.

답 ④ / '내어'에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를 붙이려면 '내-'가 모음으로 끝났기 때문 에 '-숩-'을 붙여야 한다. 다만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 미가 왔으므로 '---(a--)의 형태로 실현되어 결국 '내 숙화'가 된다.

(3A) 〈보기〉의 [A]와 [B]에 들어갈 표기를 바르게 짝지은 것은?

선생님: 'ゝ'(아래아)는 16세기 무렵에 어두가 아닌 곳에서 '_'로 변하였고, 18세기 전반에는 어두에 서 'ㅏ'로 변하였습니다. 그리고 'ㅿ'은 'ㆍ'의 변화 전에 소실되었습니다. 다음은 '무숨'이 '마음'으로 바뀌는 과정을 순서대로 나타낸 것입니다.

[A][B] 무유 **무음** [A] \mathbb{B}

마음

무 유 마음

마숨

무슴

모음

마음

답 ① / ' $^{\prime}$ '이 ' $^{\prime}$ '의 변화가 있기 전에 소실되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, [A]에는 '△'가 소실된 '무움'이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. 그 다음 어두가 아닌 곳에서 '╮'가 '_'로 변하는 현상을 적용하면 [B]에는 '무음'이 들어간다. 마지막으로 어두에서 '、'가 'ㅏ'로 변하는 현상을 적용하면 현대 국어의 '마음'이 된다.